

3/1(화) 스가랴 묵상 18

스가랴 9:9-17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그분의 구체적인 사역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 61:1-2,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왕이신 메시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국가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급기야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국가와 왕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며 예루살렘 성전까지 재건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크게 기뻐하고 노래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본문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9절, “시온의 딸아 크게 노래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들의 새 왕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왕은 누구입니까?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는 왕이십니다. 게다가 겸손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왕들은 보통 말을 타고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나귀를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그가 일반적인 왕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귀는 겸손함을 상징하는 동물을 뜻합니다. 스가랴 9:9절의 말씀을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에 인용하고 있습니다(마 21:5, 요 12:5).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왕의 특징은 10절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됩니다(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끄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또 그는 이방 땅에도 화평을 전하시고 그의 통치는 이스라엘을 넘어 땅 끝까지 이르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가 주시는 샬롬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복음이 전해지는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신 것을 알게 합니다(창 12:3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

11-12절은 포로 귀환의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과 피로 맺은 언약에 대한 신실한 이행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거저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방종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자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은 악한 원수들과의 전쟁의 이미지로서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승리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사건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14절,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 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14절은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다시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종말의 그리스도는 초림 때와

같이 겸손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은 마치 시내산 강림을 상기시키는 신현의 모습을 보여주고, 15절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군대의 연회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쟁의 중심에서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용사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심판의 날은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날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16-17절,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 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왕관의 보석과 추수 때의 풍성함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구원을 면류관 또는 생명의 관으로 비유합니다(계 2:10; 3:11). 즉 약속의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 만을 위해서 그의 예언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재림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즉 스가랴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의 처음과 끝이 되시고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주인공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신학, 구원론,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된 사상과 이론에 대해서는 과감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은 또한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직 중심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교회를 섬기며, 또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내 꿈과 행복이 성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나라의 꿈을 꾸며 살아 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소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교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브랜포드 1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 4. 지역 선교를 위한 기도:** OMSC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